

1 본회 소식



SNU장학기금마련전 성공적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69응마)와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66사회사업)가 공동주최하고 본회 산하 비영리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SAP/이사장 권영걸)이 주관하는 '2022 서울미술나눔 SNU장학기금마련전'이 지난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됐다. 9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본회 권영걸 회장과 한석란 미국남가주지부장, 모교 김성희(82회화) 학장, 서울대총동창회 이경형 부회장과 이승무 사무총장, 김명선 장학재단이사장, 박에스터 아트딜러, 이한호 대청해운 및 디팩대표, 나성숙 북촌웃칠학교대표, 선우항 프레스코갤러리 대표, 송근영 한국화여성작가회 회장, 임창현 회계사 및 영상작가, 황은성 명예회원, 유미경 단원미술관장 등 내빈과 참가작가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개막식 인사말에서 권영걸 회장은 모교 및 본회 연혁을 소개하는 한편 '서울대미술인 2023' 발간, 동문회관 마련 등 본회에서 앞으로 진행할 주요 사업들을 예고했다. 이번 전시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전시는 총동창회와 함께 주치를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총동창회에 전달해 장학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다. 우리 미대동창회가 후배들을 돕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점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총동창회 이경형 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권영걸 회장께서 회장직을 맡은 후 미대동창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진 것을 느낀다. 뜻깊은 공동주최 전시인만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협조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특별 순서로 마련된 아티스트톡 시간에는 이번 전시에 과일 시리즈 대표작들을 출품한 한운성(66회화) 모교 명예교수가 자신의 작품세계와 작가로서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

견을 피력했다. 개막식의 마지막 순서로는 SAP 아트디렉터 박도현(16디자인) 동문이 참가 작가들의 작품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전시투어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는 동문 특별할인가 제공, 카드결제 제공, 작품가 명시, 작품 구매시 현장에서 바로 포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전에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됐다. 13일간 진행된 이번 전시에는 약 40여 명 동문 작가의 백여 점에 달하는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서울대 동문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시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중 일부는 서울대총동창회에 장학기금으로 전달되며 나머지는 본회 창작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본회 소식

아작하는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 컵라면 무료제공 !!
11/17 ~ 12/6
매주 화,목 10:00~17:00
서울대미술대 50동 311호(동창회 사무국)
협력: 미대학생회



야식사업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

본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졸업전시를 준비하거나 학기말 과제로 인해 야간작업을 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야식사업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본회는 모교 학생회와 협력하여 이 기간 동안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회 서울대오피스(모교 50동 311호)에서 모교 재학생들에게 야식으로 다양한 컵라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번 준비한 양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본회는 모교 재학생을 지원하고 교류할 목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재학생 야식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모교 소식

IDCC 2022 개최



모교 디자인학부와 BK21 사회적 감수성을 실천하는 디자인리더양성사업단이 주관하고 모교 조형연구소가 주최하는 서울대 국제디자인컨퍼런스 IDCC(International Design Culture Conference)가 올해는 ‘Design a Material’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4일, 5일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모교 이장섭 교수, 임선아 교수의 기획 및 진행으로 디자인의 소재 탐구를 주제로 다양한 디자이너, 작가,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송희원&조한올린(컴퍼니), 요나스 에드바드(요나스에드바드스튜디오), 허미숙(이스트카를리나데), 벤튼 칭(리플렉스) 등이 강연자로 참석했다.

도예전공 판매전 개최



모교 도자공예전공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교 52동 210호에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2022 도예전공 판매전을 개최한다. 도예전공에서는 현대도예가로의 성장을 목표로 흙을 다루는 기술적 훈련, 사물을 보는 안목, 예술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예적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다. 도예전공은 각자의 개성이 있는 학생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연말행사의 전통을 매년 지켜오고 있다.

동양화과 스케치여행 작품전시

지난 2022년 1학기과 2학기 스케치 여행에서 진행한 동양화과 학생들의 연합작업 및 개인작업이 서울대학교 73동 문화관에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시되었다. 1학기에 그려진 연합작업은 서울대 내부에 있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2학기에 그려진 연합작업과 개인작업은 낙산사 주변을 사생한 작업들이다. 관람객들은 각 그림이 교내 어떤 장소를 그린 것일지 유추하면서 더욱 흥미로운 감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77년의 역사를 담는다!! ‘서울대미술인 2023’

본회는 시각예술분야는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영화, 공연, 저서 등 전체 미대 동문의 실적물을 수록하는 ‘서울대미술인 2023’(가칭)을 발간하려 합니다. 광복 이후 한국미술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46학번 원로 동문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무장한 2022년도 신입동문까지 전 학번, 전공을 총망라하는 전무후무한 자료집이 될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요청이 많아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 신청분야 : 회화/조각/공예/영상/퍼포먼스/설치/건축/디자인/영화/공연/음악/저서/운영사업체/프로젝트 등
- 신청대상 : 전 회원 (단, 2022년도 연회비(임원회비)나 평생회비 납부자에 한함 ※ 작고회원은 회비 없이 수록)
- 도록출판 : 2023년 4월 중 예정(출판행사에서 도록배부 예정)
※ 도록은 최소수량 인쇄 예정으로 미리 신청(권당 5만원 예정)

2. 신청요강

- 신청기간 : 2022. 11. 18 - 12. 15
- 신청방법 : snuarta@naver.com 메일로 신청서 및 이미지 1장 제출
- 신청서 : 11. 18 전 회원 메일로 전송됨
- 3. 문의 : 동창회 사무국 (전화) 02-555-1946 (문자) 010-5235-1946

학생회장 선거 무산

지난 11월 열린 모교 학생회 선거에서 선거운동본부 「파동」이 단독으로 출마했으나 최종 가투표율이 21.6%에 머물러 선거가 무산됐다. 따라서 내년 3월 재선거 이전까지 운영위원회 또는 연석회의 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1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작품 공모

모교 동양화과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부터 오는 12월 04일까지 모교 동양화과 학부졸업 및 석사재학 이상인 동문들을 대상으로 제 1회 미술품보존센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 ▲ 공모접수: 2022. 11. 11 - 12. 04
- ▲ 심사: 12월 첫째주
- ▲ 심사결과 발표: 12월 7일
- ▲ 시상 및 부상 전달: 12월 중

※기타 작품기준 및 세부공지사항, 유의사항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홈페이지_뉴스 '제 1회 미술품보존센터 공모전 참가신청서'에서 확인가능

2022학년도 전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작품 전시회

학사 1차 : 동양화·공예

- ▲기 간: 2022. 12. 1 – 2022. 12. 4
- ▲장 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 51, 52, 74동
- ▲시 간: 10:00 – 18:00

학사 2차 : 서양화·조소·디자인·영상매체예술

- ▲기 간: 2022. 12. 8 – 2022. 12. 11
- ▲장 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49, 50, 51, 52동

석박사

- ▲기 간: 2022. 12. 8 – 2022. 12. 28
- ▲장 소: 서울대학교 미술관 전시실

개막 행사

- ▲기 간: 2022. 12. 8, 16:00-
- ▲장 소: 서울대학교 미술관 렉처홀

서울대소식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 접견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 지난 11월 3일 주한 리투아니아대사인 Ričardas Šlepavičius (리카르다스 슬리파비시우스) 대사와 접견하였다. 리투아니아 비토 타스 마그누스 농업대학 Astrida Miceikienė 학장도 접견에 함께 참석하였다. 슬리파비시우스 대사는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진 오늘날, K-컨텐츠로 전 세계에 문화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국에 오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 문화, 교육, 경제 등 분야에서 한국-리투아니아간 우호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부임 이후 목표라고 말하며, 이번 접견을 통해 서울대학교와 리투아니아 내 대학교 간에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오 총장은 슬리 파비시우스 대사의 부임에 환영의 말을 전하며, 소통과 교류가 더욱 중요해진 오늘날 문화와 예술이 보여주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였다. 이날 접견에는 서울대학교 Bernhard Egger 국제협력본부부장(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 국제협력센터장 김홍석 교수(농경제사회 학부 교수)도 참석하였다.

서울대 RC 사생 모집한다

서울대는 지난 11월 3일 중앙도서관 관정관 3층 양두석홀에서 서울대의 RC (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교육)인 LnL(Living&Learning) 시범 사업 학부 설명회가 개최했다. RC는 각 기숙사가 고유한 학풍과 교육 권한을 갖는 형태의 교육이다. 총학생회 '자정'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LnL 시범 사업 관련 발제, 총학 협조 및 대응 사항 설명, 현장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시범 사업은 2층부터 8층 일부가 리모델링될 906동에서 2023년 3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시범 사업을 위해 신입생 248명과 재학생 26명 등 총 274명을 모집한다. 재학생의 경우 지난 11월 중순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시범 사업 발제를 맡은 LnL 시범 사업 운영단 이정훈 운영단장(중어중문학과)은 LnL 사업에 대해 "학교가 짜 놓은 틀 안에서 학생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학생들과 교류하는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 하반기 기업탐방



기업 채용정보 안내 시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선배와의 대화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았다", "하이퍼라운지와 구글코리아의 재직 환경, 채용정보 등에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였다. 이 두 기업을 시작으로 하여 경력개발센터에서는 KPMG, MBC 방문과 LG전자, 현대오일뱅크 등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22학년 2학기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금), 30일(금)에 30명의 본교 학생들이 하이퍼라운지, 구글코리아를 방문하는 기업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오전에는 기업에 대한 소개 및 학생 탐방, 오후에 인사담당자로부터

총장 최종후보자 유홍림(80정치) 교수



모교 제28대 총장 최종후보자에 유홍림(80정치)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1961년생인 유홍림 최종후보자는 충북 청주고를 졸업했다. 모교 정치학과에서 1984년에 학사학위, 1986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1994년 미국 럿거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모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과학대학 학생 부학장, 기록관 관장, 사회과학대학장 등 다수의 학내 보직을 맡았다. 모교 대학신문사 주간, 법인화준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학내 사정에 밝은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전공 분야는 서양 정치 사상사와 현대 정치사상이다.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홍림 최종후보자는 정치학과 출신 세 번째 모교 총장이기도 하다. 사회과학대 소속 교수가 총장이 된 것은 정운찬(경제66-70) 제23대 총장 이후 20년 만이다. 최종후보자를 선출한 이사회 면접에서는 최근 모교가 발표한 2025~2040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총장후보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홍림 최종후보자는 학부 기초대학과 연동한 기숙형 교육(RC) 도입을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학부기초대학(가칭)을 학사조직으로 설립하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1~2년간 문제해결 능력, 소통-공감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 공통 핵심역량을 교육하겠다고 했다. '자율화와 신뢰구축 위원회'를 설치해 고등교육법과 서울대법 등 법령과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놴. 산학부총장제를 도입해 산하에 산학협력 전담 TF를 운영하고, 융복합적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관악캠퍼스 행정관 주변에 소통 공간 'SNU 커먼즈'와 'SNU 액티비티 카페'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재정 면에서는 정부출연금을 현재 연 5500억원 수준에서 7200억원으로 증액하고, 2000억원 규모의 'SNU 연구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SNU 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수익사업 구조 전문화도 언급했다. 향후 교육부 인사위원회는 최종후보자에 대한 연구실적물 연구윤리, 재산, 징계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홍림 최종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총학생회 '정오' 당선



지난 11월 26일 제63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운동본부 「정오」의 조재현 정후보(20자 유전공)와 박용규 부후보(20경제)가 당선됐다. 실투표율은 50.96%, 최종 득표율은 71.84%로 집계됐다. '정오' 조재현 정후보는 "'자정'을 이어서, '자정'을 넘어서 '정오'의 기초에 맞춰 기존에 못다 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당선 소감을, 박용규 부후보는 "새로운 학생회를 위해 빠르게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단과대 회장과 소통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총학 「정오」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다(사진출처:대학신문).

전공설계지원센터 신설

서울대는 다전공 선발 인원을 늘리고 선발 기준을 완화해 학생들이 여러 전공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서울대는 학생들의 학업계획수립과 전공설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지난 8월 중앙도서관 지하 2층에 새롭게 '전공설계지원센터'(이하 전설센터)를 설립했다. 9월부터 시작된 상담과 더불어 전설센터는 전공설계간담회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어왔다. 8월 개관한 전설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학부생 신청자에 한해 평일 낮 중 학업 및 전공 이수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단기간에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인증과정 등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개인별 상담과 더불어 전체 학생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4 총동창회 소식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제 176차 상임위원회 개최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의 제176차 상임위원회가 지난 11월 8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총동창회 김종섭(66사회사업) 회장과 이경형(66사회) 상임부회장, 우창록(70법학) 법대동창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상임위원회는 올해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3년 수입합계 예산안은 23억6610만원으로 올해 대비 1억1010만원 증액됐으며,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서울대 동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보람 있는 동창회'를 목표로 동문들의 나눔실천과 재능기부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본회 사회공헌위원회와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라고 뜻을 모았다. 한편 동문 경제인을 중심으로 최근 출범한 '관악경제인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총동창회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올해 5월 열린 동문가족음악회를 기부음악회로 계승하고 조찬포럼 및 수요특강을 더욱 알차게 다듬었다.

내년부터 총동창회비 인상

총동창회는 지난 11월 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회비인상안을 의결하였다. 총동창회는 2006년 이후 16년 동안 회비를 동결해왔으나 십수년 전 책정된 회비로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동창신문 제작 및 발송, 각종 행사 및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인상안의 이유를 밝혔다. 김종섭 회장은 술선수범해서 회장 연회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부회장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특별과장·직능지부동창회 분담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이사회원 연회비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평생회비는 만 65세 미만 70만원에서 100만원, 만 65세 이상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일반회원의 경우 연회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평생회비 만 65세 미만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만 65세 이상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회비인상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Mall SNUA 연회비 폐지

총동창회 동문전용 쇼핑몰 'Mall SNUA'가 10월 31일을 기하여 연회비 제도를 폐지했다. Mall SNUA는 지난 8월 31일 오픈과 함께 동문들의 많은 성원을 받은 데 힘입어 더 많은 동문들의 가입을 독려하고자 연회비 문턱을 없앴다. 기존 회원이 납부한 Mall SNUA 연회비는 전액 적립금으로 반환된다. 연회비는 없어져도 할인 혜택은 그대로다. 동문 전용 쇼핑몰 존재 자체가 이유 추구가 아닌 동문 간 소통에 있는 만큼 다른 어떤 쇼핑몰보다 최저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회 신임이사 선임



관악회(이사장 김종섭)가 지난 11월 3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제144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류관희(63농공) 모교 농생대

명예교수와 서병륜(69농공) 로지스윌그룹 회장이 새로 이사에 선임됐다. 류 신임 이사는 모교에서 농공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농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송천재단 상임이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 회원이다. 농생대동창회 회장을 역임했다. 서 신임 이사는 모교 졸업 후 명지

대 대학원에서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회장, 제9대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본회 산하 관악경제인회 수석부회장, 농생대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 선임 및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회공헌위, 임현진 위원 등 4명 추가 위촉

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변주선·류진)는 지난 11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0월 말까지 기부금 4억4000만원을 모금해 총 1억1500여 만원을 집행했다. 이날 경과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지원(3000만원), 얼굴기형 어린이 수술 후원(6000만원) 모교 수해복구 지원(4078만원) 등 올해 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모교 동문 지원,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 협력사업,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을 제시하고 내년 1월에 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폭넓은 활동을 위해 임현진(67사회)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서병륜(69농공) 로지스윌그룹 회장, 이선진(69농가정)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 여명석(87건축)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가을 등산대회 마쳐



총동창회가 지난 10월 20일 가을 등산대회를 열었다. 주왕산 절골로 떠난 이번 등산대회엔 배기호(73국문) 산행대장, 총동창회 이경형(66사회) 상임부회장과 이승무(72경제) 사무총장을 비롯해 동문 30명이 참가했다. 오전8시 종합운동장역에서 출발해 12시에 경북 청송에 도착, 점심을 함께 한 동문들은 오후1시경 절골 탐방소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동문들은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과 절벽을 채색한 단풍을 감상했다. 한편 9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60일간 하루 1350명만 산행이 허용되는 이곳 주왕산 절골계곡 숲길은 2016년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12월 수요특강

- 일 시 : 12월 28일 (수) 낮 12시
- 장 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주 제 : 2023년도 경제 전망
- 참 가 비 : 무료(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 신청기간 : 12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신청방법 : 성명,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문자1599-7704(전화불가), 팩스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202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신년인사회

- 일 시 : 2023년 1월 13일 (금)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 소공동 소재)
- 행사내용 : 신년음악회, 신년인사 및 덕담, 유공 동문 표창, 오찬 등
- 참가신청 : 12월 16일(금)까지 사전신청 (성명, 학과, 입학연도, 휴대전화번호 기재) -문자1599-7704 이메일 member@snu.or.kr
- 참 가 비 : 5만원(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입금 시 성명과 입학연도 표기

[회비 납부 안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2022년도 연회비를 내 주신 분에 한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비계좌 : 신한은행 140-001-180304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입금 시 성명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후원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11.1-11.30)-가나다순

부회장 회비	권대훈(90조소)
일 반 회비	남재현(00동양) 박미화(75응미) 이승은(14동양) 한운성(65회화)
평 생 회비	김병중(74회화) 이광택(80회화)
후 원 금	김병중(74회화) 오병욱(76회화) 임철순(74회화)
광고 후원금	나성숙(71응미) 20만원 변영혜(78회화) 20만원 이민주(76회화) 20만원 디팩 20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권용래(82회화) 모친상, 2022년 11월 7일
서동수(86서양) 모친상, 2022년 11월 14일
손유빈(12동양) 모친상, 2022년 11월 17일
전기현(94공예) 부친상, 2022년 11월 27일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 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 · 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

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전시 및 행사 · 인사 · 수상 · 개업 · 결혼 · 부고 등 동정을 메일(snuarta@naver.com)이나 문자(010-5235-1946)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 · 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5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후원광고

BOX 가격표							
호	가로	세로					
		F(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사이즈(cm)	가격(원)
60*80	5,500
100*80	6,600
100*130	8,800
150*125	13,200
140*170	14,300
150*190	16,500

대한민국기독교예술대상 수상 김재임(56회화)



김재임 동문이 지난 11월 25일 CTS 기독교TV 11층 컴벤션홀에서 2022년도 대한민국기독교예술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기독교예술대상은 한국기독교예술총연합회에서 평생을 기독교문화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훌륭한 예술인에게 주는 상이다. 김동문은 1958년 제 709회 국전에서 3차례 입선하고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왔다. 이후 김동문은 명

지실전, 송의여자전문대학교에서 강사로, 전주대학교에서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한 후 1989년부터 미국 타우슨주립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예원예술 학교와 서울예고 강사로도 재직한 김동문은 1960년 중앙공보관에서 열린 개인전을 시작으로 초대개인전 10회를 포함해 38회의 개인전을 주최하는 등 근 50여년간 작가로서도 꾸준한 길을 걸어왔다. 그 외에도 이형회전, 예술의 현신-신앙고백전, 한국여류화가회 대만전 등 단체전에 참여해오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였다.지난해에는 미국의 해외선교연구센터(OMSC) 초청으로 10개월간 예일대 교정 안에 있는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 및 동양화 시범수업을 진행하였다.

보관문화훈장 수훈 이순중(70응미)

이순중(모교 디자인학부 명예교수) 동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2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다. 이동문은 모교 재직시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래의 총감독으로 선임되어 한국디자인의 국제화와 세계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디자인학, 공학, 경영학이 연계된 융합창의교육전공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디자인중심의 융합창조교육을 선도하였다. 또한 모교 학장과 전국미술디자인대



학학장협의회 회장,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창조사회를 위한 국가의 예술디자인 정책을 다각적으로 제안하였다. 최근에 이순중 동문은 종로구 평창동 인근 문화예술인과 함께 (사)자문박문화포럼을 설립, 자문박문화축제, 아트레지던시, 창의예술학교, 미술관건립 등 자문박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지역사회에 연결해 창의적 예술마를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다.

‘나는 행복을 그립니다’ 출간 박혜령(74회화)

박혜령 동문의 에세이 ‘나는 행복을 그립니다’가 지난 11월 2일 서교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번 저서는 박동문이 결혼과 육아로 화가의 꿈에서 멀어졌던 이야기에서부터 암 투병과 사별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찾아가는 서른 여섯편의 자전적 에세이를 싣고 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에피소드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잊지 못할 추억의 편린들, 화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경험과 활약상을 그림과 함께 풀어놓았다. 서울의 옛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향수와 작가 특유의 순수함과 풋풋함, 향수 그리고



인생 3막을 향해 곳곳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2006년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시작하였다. 박동문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동백꽃과 기품있는꽃인 모란을 주로 그려왔으며, 서울아트쇼를 비롯하여 다수의 아트페어와 13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7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독도문예대전(2021년)심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여류수채화가협회 회장과 서울대 미대 여성동문회인 한울회 부회장직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세계100대작가 선정 양혜규(90조소)

양혜규 동문이 독일 경제잡지 '캐피탈'이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올해 쿤스트 콤파스 '세계 100대 작가'에 선정됐다. 국내작가로는 유일하게 93위에 선정돼 지난해 99위에서 6계단 오른 양동문은 모교와 독일 슈테델슐레 순수미술학부를 졸업하고 서울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샤머니즘과 이중문화 결합을 주제로 작업을 발전시켜온 그는 올해 덴마크 국립미술관과 베를린, 파리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품전 등 그



룹전에 출품했다.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참여했고, 2018년 아시아 여성작가 최초로 독일의 볼프강 한 미술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싱가포르비엔날레에 참여해 한국인 최초로 베네세상을 받았다. 100대 작가 명단은 캐피탈이 세계 3만명 이상 생존 작가를 대상으로 매년 주요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한 횟수, 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해 11월에 발표한다.

후원광고



나성숙 옷칠 학교

(www.bukchonart.com 배움터)

2008년부터 시작하여 23기를 배출한 옷칠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초반	기초가 없는 일반인 대상
2차수업	나전, 할패기법, 골회바르기, 흑칠하기
3차수업	두부교칠, 색옷칠 마연기법, 금박기법
심화과정	옷칠공방 운영자, 칠 전공자 연구반

시 간 화,금 오전 10시 -오후 1시

장 소 서로재(종로구 북촌로 6길 32-1)

원 서 www.bukchonart.com 배움터

수강료 월 33만원 (부가세 포함) 신한은행

(주)봉산서로재 140-010-776743

연 락 02-766-6649 nass@seoultech.ac.kr

북촌 한옥에서
나전 소반 만들기



7 회원동정

최우수예술가 선정 이기향(75조소)

의상디자이너 이기향 동문이 한국예술평론가협회가 주최하는 제42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 의상부분 최우수예술가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9일 서울 인현동 피제이호텔 카라디움홀에서 개최된다. '올해의 최우수예술가' 상은 10대에서 70대를 아우르며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예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 지역예술을 꽃피우고 있는 예술가, 전도유망한 예술가들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5개 영역, 14개 부문의 예술활동에 대해 시상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미국 시카고예술학교,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한성대학교 글로벌패션학부 교수와 예술대학원장을 지냈다. 또한 파리 루브르박물관 전시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200여회의 작품발표를 했으며, 1996년 개인전 '피안을 향하여'부터 2019년 '보주, 춤추다 II'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오늘에 잇고 나아가 인류와 소통하고자 하는 작업을 선보여왔다.

서울시디자인정책관 임명 최인규(92산디)



최인규 동문이 지난 10월 29일,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디자인도시 모델 정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디자인산업 육성 등 디자인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디자인정책관에 임명됐다. 최동문은 개방형직위 공모에 지원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발됐다. 최동문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이라는 자리는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하여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시민, 내외부 전문가 등과 합심하여 디자인을 통한 글로벌 Top5 매력도시 조성, 디자인서울2.0 추진체계 마련,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한 서울의 경제활성화 등 디자인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 학사와 석사, 공간디자인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제대 멀티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해시 상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디자인지원실, 기아자동차 중앙기술연구소 디자인센터 등 다양한 현장 경력도 보유했다.

스마트클라우드쇼 강연 이수인(95조소)



이수인 동문이 에누마 공동대표로서 지난 9월 1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스마트클라우드쇼 2022'에서 고질적인 한국교육을 지적하고 에누마의 교육 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동문은 게임 회사인 엔씨소프트 출신으로, 남편 이건호 최고 기술책임자(CTO)와 2012년 미국 버클리에서 교육 스타트업 에누마를 공동창업했다. 에누마는 3~9세

아동이 부모나 교사의 도움 없이도 기본 문해(文解)와 수학, 영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 두 대표가 가진 게임 회사 근무 경험이 교육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로 이어져 아이가 놀듯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로 디자인했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지난 2014년 게임을 통해 수학학습을 돕는 '토도수학'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육 공백이 일어난 이후 이대표는 '교육 위기' 극복의 단초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2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초청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클라우드 슈바프 WEF 회장이 설립한 슈바프재단에서 '올해의 사회 혁신가(Social Innovator of the Year)'로 이 대표가 선정됐다.

문화콘텐츠포럼 기조연설 이진준(01조소)



이진준 동문이 지난 9월 21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더그레이트홀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문화콘텐츠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이 미술상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AI가 만든 작품이 예술인가? AI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제시하며 미래 인간과 AI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예술을 감상

할 수 있거나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이동문은 현대 예술을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로 협업과 상호작용, 열려 있는 자세와 탈중앙화, 모호함을 꼽으며 "작품 완성도는 단지 표현하는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상하는가에 있는 것"이라며 '수용자의 미학'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문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모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영국왕립예술대학원 현대미술석사,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순수미술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와 뉴미디어 작가로 활동 중이며, 2021년에는 영국 왕립예술학회 종신 석학회원 자격을 부여 받았다.

번역서 출간 안진이(석03미술이론)

안진이 동문이 한국어판으로 옮긴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가 지난 10월 5일 출간되었다. 안동문이 번역한 이 책은 불확실하고 믿기 어려운 직감 대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복한 인생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책의 저자 세스 스티븐스는 전 구글 데이터과학자 출신 경제학자이자 저술가로, 구글 검색을 사용해 인종차별, 자기유발 낙태, 우울증, 아동학대, 증오의 폭도, 유머, 성적 선호, 불안, 아들 선호, 성적 불안 등 주요 이슈에 관해 데이



터를 측정해왔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영혼의 순례자 반 고흐'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 수업'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타임 푸어' '마음가면'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시간을 찾아드립니다' '하버드 철학자들의 인생수업' '컬러의 힘'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서울예고와 메타버스전시 김휘재(12동양)



김휘재 동문이 대표로 경영하는 예술특화 메타버스전시 스타트업 '멤'(MEUM)이 국내 명문 예술교육기관인 서울예술고등학교(교장 권영걸)와 지난 11월 1일부터 두 달간 '메타버스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는 전국 예고 중 처음으로 열리는 '메타버스(Metaverse) 온라인 전시회'로서, 올해 개교 69주년을 맞은 서울예고가 2학년 재학생들의 교내 미전 작품 140여점을 '

멤' 메타버스 가상 전시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멤'을 활용해 서울예고 학생들의 예술혼과 예술적 재능을 알리고, 2023년 5월 교내에 개관 예정인 서울아트센터의 성공적인 개관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한편 서울예고 출신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예술사업 정보통신 기술관련 특허 보유자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획을 맡고 있는 김동문은 멤을 미대출신인 그의 철학에 따라 미래의 미술인재를 지원하고 양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멤'은 최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2022 슈퍼스타트 데이' 행사에서 LG그룹이 선정한 11개 유망 스타트업 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있다.

문혜정 개인전 문혜정(74회화)

문혜정 동문의 특별초대전이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베카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문동문의 회화 17점과 영상을 선보인다. 특히 베카갤러리는 문동문의 독일 유학시절 회화 작품부터 드로잉 회화 영상설치에 이르는 30여년의 작품을 총 망라해 작가 문혜정의 삶과 작업을 성찰해 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다. 문동문은 그간 설치와 개념미술의 형식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대해 따졌고, 회



kodak 사진공모전수상 독일외무성 예술기금을 수상한 바 있다.

화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말해왔다. 문동문의 초대전은 관객들에게 젊음의 뒤편에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가며 그 간의 우리들의 삶도 성찰하는 장이 될 것이다. 한편 문동문은 모교 서양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한 뒤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 예술대학에서 유학하였으며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국회 젊은작가상 독일

도홍록 유작전 도홍록(75조소, 1956-2016)

도홍록 동문의 유작전이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458 CAFORE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영은미술관에서 기증받은 도홍록 작가의 주요 유작을 중심으로 선보인다. 도홍록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변치 않는 재료인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하여 깊은 사유의 면모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는 작품에 구상의 모습을 입음으로써 오히려 역(逆)으로 재현된 사물, 조각, 그리고 재료에 대해 의구심을 던진다. 도동문은 핵심재료인 스테인리스 스틸의 물성을 명확히 이해하며 작업했을 뿐만 아니



도동문은 Handa-Sih Outdoor Sculpture 가작상, Kofu-shi Machinakano Sculpture 우수작품상, 미요시가오카 조각전 마케트전 특선을 수상했다.

라, 재료를 통해 재현한 대상에 대해서도 숙고했다. 그의 '사과' 작품은 흔한 과일로 여겨질 수 있는 사과라는 대상을 통해 자유롭게 사유를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영은미술관 측은 "기획전을 통해 도홍록의 유작을 여러 관람객이 눈과 몸으로 경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생성하는 올림의 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모교 및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한

하나이면서 셋 서용선(75회화), 이재현(02서양)

서용선 동문과 이재현 동문이 이은새 작가와 함께 단체전 '하나이면서 셋'을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누크갤러리에서 개최하였다. 제목인 '하나이면서 셋'은 인물이나 풍경을 소재로 삼지만, 각기 다른 시선을 가진 세 작가의 작업 세계를 통해 보다 다층적으로 각 작가의 그림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잊혀진 과거 역사나 신화, 그리고 파편이 되 각인된 목격했던 현실을 대면하면서 인문학적 태도로 그려온



더불어 인물화 신작을 선보였다

서동문과 형상과 풍경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며 시간 간 너머 미지의 세계를 화면 안에서 탐구하는 이동문,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가감없이 화면에 담아 온 이은새 작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이번 전시에서 서동문은 오녀산성을 포함해 도시와 인물이 담긴 풍경화 등 다수의 신작을, 이동문은 풍경 속 형상이 담긴 그림과 더불어 인물화 신작을 선보였다

BEAUTY IN GRACE 변영혜(78회화)



변영혜 동문이 오는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성화개인전을 개최한다. 변동문은 이번 전시회에 초대형 벽화를 선보인다. 1000호, 500호의 회벽 위에 금박과 혼합재료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상징하는 이미지인 돌기둥, 구름, 날개를 표현하여 나타

난 질감은 캔버스와 종이에서는 볼 수 없는 중후한 웅장함을 더한다. 한편 변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후 미국 FIT에서 보석디자인을 전공하고 귀국하였다. 1990년부터 기독교미술을 시작하여 30여년을 신앙고백적 성화작품을 해오고 있는 변동문은 뉴욕, 파리, 밀라노, 모스크바, 북경, 동경에서 해외전과 360여회의 단체전, 21회의 개인전과 마이애미아트페어 등 국내외의 아트페어에 참가하였다. 또한 '기독교여성예술인상' 등 다수의 수상을 한 바 있으며 현재 헝시바아트 대표이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변동문의 작품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번전시에는 Titian작가의 NFT generating artwork가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변영혜 현대성화전

전시기간 : 2022.12.10(토) ~ 18(일), 월요일 휴관
오픈예배 : 2022.12.10(토), 오후 4시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무료관람)
전시장소 :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 제2전시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Tel 031-783-8000)

- 초대형 벽화와 NFT generating artwork 전시
- 모바일 사이트로 온라인전시 동시진행
www.genuineartwork.co.kr

후원광고
The Glory of God



여행-간이역 이강화(81회화)

이강화 동문의 '여행-간이역' 특별 초대전이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에 위치한 베카갤러리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이번 초대전은 오랜 시간 작업을 해온 이동문이 비어 있는 자신, 자유로운 자신으로 되돌리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이동문의 풍경화에는 자연의 섭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자연에 내재된 강한 생명력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엿볼 수 있다. 베카갤러리 관계자는 "자연의 본질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이강화의 개



인전을 통해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지는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고, 동시에 자연은 인간의 마음을 깨우치는 스승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회화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프랑스 파리 국립8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갤러리상과 프랑스 파리 등에서 43회의 개인전을 개최해 왔다.

스물네개의 빛바람 김덕용(81회화)

김덕용 동문의 개인전 '차경(借景)과 자경(自景)사이 스물네 개의 빛바람'이 지난 10월 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영은미술관에서 개최된다. 김동문은 오랫동안 나무와 자개를 근간으로 우리 심상의 근원을 빛과 걸로 조형화 한 작업을 미술계에 선보여 왔다. 이번 영은미술관 특별기획전에서 김동문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자개와 나무를 통해 '소년과 여인' 작품 등을 제작해 생명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개는 관람객이 그림을 바라보는 자세를 조금만 달리해도 제각각의 빛을 발산하기에 이번 전시의 부제



인 "스물 네 개의 빛바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태어나 살아가며 먼 훗날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빛 중 하나가 되기까지의 인간의 여정을 자개의 빛과 나무의 숨결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18여 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하였다. 현재 김동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스위스 한국대사관 등에 소장되어있다.

cul de sac 정승운(82회화)

정승운 동문의 개인전 'cul de sac'전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페이스개에서 열린다. 정동문의 모든 작품들이 '그림'이라고 볼 수 없으니 '풍경화'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또한 그가 적극적으로 풍경화를 그린 적도 없지만, 이번 전시에서 베니아 합판을 말아 만든 둥근 원기둥 형태의 안쪽으로부터 흰 선이 내려오는 '폭포'를 연상케하는 한 쌍의 작품을 정동문 자신이 '무제'라고 부르는 말든, 풍경으로 볼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전형적인 산등성이의 굴곡으로 커팅된 종이컵들도, 손바닥만한 선반 위



에 올려진, 오묘하게 먹빛 산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석(壽石)도, 그 아래 수석을 쏙 받쳐놓을 수 있게 위쪽을 파낸 길고 검은 좌대의 표면에도 풍경이 있다. 정동문의 작품에는 모두 다르게 보이는 풍경들이 그 안에 있다. 정승운의 작품에서 발생하는, 고도로 고양된 문명이 자연을 압축한 이런 느낌은 흔히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정승운 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뉘른베르크에서 조형예술아카데미, 뒤셀도르프의 쿤스트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Signs of Fortune 오영재(83서양)

오영재 동문의 메타버스 개인전 Signs of Fortune이 메타버스 갤러리 '스튜디오 메타아트'를 통해 지난 10월 28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고대 언어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미학과 조형체계를 디지털 미디어 아트로 표현하는 오영재 작가의 미학적 관점을 메타버스로 극대화한 전시이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컴퓨터 아트를 전공하며 1990년대 이후 디지털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어 온 1



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로 다양한 전시 및 산학 미디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영상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박사로 디지털 미디어의 학

제간 연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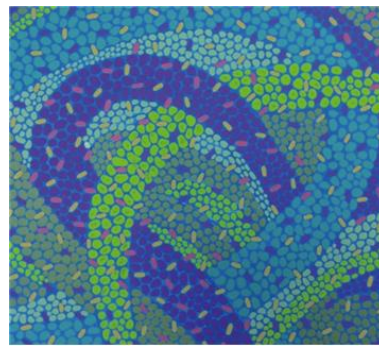
Homing Instinct
回歸本能
회귀본능
이민주 초대전
2022.12.16(금) ~ 23(금)
검재정선미술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길 36
Tel: 02-2659-2206

후원광고

10 회원동정-전시

무아 조창환(86조소)

조창환 동문의 개인전 '무아'가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문화마을에서 열렸다. 2022 고성문화재단 전문예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는 도시를 떠나 고성에 정착한 조동문의 감회를 시와 그림으로 전달했다. 퍼즐H프로젝트 패키지박스 작업, 평창동 도시 한복판에서의 오브제 작업 등 철저하게 동시대의 상징성을 객관적으로 전개하던 작업은 고성 산야를 접하면서 자기탐미적으로 주관적으로 변모하였다. 시리즈의



초기작업은 나의 주변환경이 나를 대변하는 현상적인 무아를 이야기하였다면, 이번 전시는 주변 상황보다는 음과 양으로 호흡하는 자아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부딪치고 확장하여 본래의 고향 우주로 지향해가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한편 조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뒤 예술프로젝트 퍼즐H, 자문박문화축제 오픈 스튜디오 등에 선정되었으며 11회의 개인전과 20회의 그룹전을 개최하였다.

레이디 분수와 담배 김나영(87조소)

김나영 동문과 그레고리 마스의 2022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경남 김해공원에서 시민에 공개됐다. 이번 전시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세라믹창작센터 입주작가 후속지원 프로그램으로, 김나영&그레고리마스의 '레이디 분수와 담배'를 공개한다. Lady Fountain은 곡예를 하는 듯한 포즈의 여성이 입으로 물을 뿜는 형상을 하고 있는 조형물이다. 역사적으로 유럽과 무슬림 정원의 중심역할을 한 분수는 생명의 근원, 지혜, 순수함을 상징하며 발전해 왔다. 또한, 분수는 당대 최고의



기술력과 권력을 상징하며 고전적인 쾌락과 예술을 우회하는 양상을 자주 보여왔다. 이번 작품 또한 이러한 역사와 미학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문은 모교 졸업 후 프랑스 파리국립미술학교 아트스쿨에서 그레고리마스를 만났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세계를 누비며 듀오작가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 두 작가의 대표작은 복합설치작품 '풀밭 위의 점심식사'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연 팻말과 분수를 권력과 기술의 상징으로 해석한 작업을 선보였다.

순(瞬)·간(間) 그리고 흐름의 정적(靜積) 이광수(88동양)

이광수 동문의 개인전 '순(瞬)·간(間) 그리고 흐름의 정적(靜積)'이 G-ART Gallery에서 11월16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이동문은 유학 이후 중국 산수화가 리커란과 적묵법에서 영향을 받아 매우 강한 먹색으로 그려진 그림을 보여준 화가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의 자연을 실경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의 자연을 진지하게 연구하였으며 박사과정을 통해 한국의 미학과도 연결을 지은 작품들이 탄생한다. 이동문의 화풍에서의 정체성은 적묵법(積墨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적묵법은 먹을 오랜 시간 쌓아 올리면서 화면이 어두어지고 경직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현재 그만의 화법을



만들게 되었고 먹의 일필로 속도감을 주어 창밖의 흐르는 풍경을 자취로 남기는 독창적 작품을 보여주었다. 옅은 청색을 시작으로 여러 색을 가미하기도 하며 수많은 붓질을 반복하면서 마치 염색하듯 말리고 또 올리고, 말리고 또 올리고 이러한 행위를 수십 번에 걸쳐 반복한 그의 전시의 제목은 '고요히 쌓는다(靜積)'이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중국화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忍辱의 그리기 우상호(89서양)

우상호 동문의 열여섯 번째 개인전이 한국미술재단 주최로 서울 서초동의 아트버스 카페에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렸다. 우동문은 동서고금 소통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의 책을 추상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으며, 북경의 중앙미술학원 대학원에서 칠벽화를 전공한 후 옷 대신 아크릴로 칠화기법을 응용한, 미술계에 전통 기법과 현대 재료가 결합된 좋은 통섭의 예를 보여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작품 속의 책들은 다양



한 공간 안에서 곧게 혹은 옆으로 기대어 서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을 표현한다. 이번 전시는 우동문이 대학을 졸업한 후 그림을 그린 지 30년이 되는 올해의 3번째 초대 개인전이기도 하다. 우동문은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미술재단 소속작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주)ELT PHARNMA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달항아리전 성석진(90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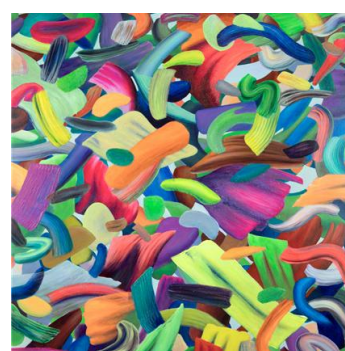
성석진 동문의 달항아리 전이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인 이코노그래피에서 열렸다. 두 개의 사발을 얹어 놓은 전통 엽다지 기법으로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계승한 성동문의 달항아리는 본인이 직접 배합한 하동 백토의 흙에서 비롯한 질박하면서도 단단한 텍스처가 특징이다. 또한 여주 작업장 밤하늘의 무수한 별에서 영감을 받아, 크고 작은 금색 동그라미와 점들을 항아리 표면 가득히 찍어 완성한 백금, 흑유, 금채 달항아리와 부조 도판 작업은 <유니버스>라는 테마로 새롭게 선보



이는 최근 작품들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서양화, 동양화 선후배인 송인옥, 김현지, 이정은 동문이 성동문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작업한 생활 자기들도 함께 전시되었는데, 성동문의 백자 도자기 위에 선후배 작가의 회화적 붓터치가 조화를 이루며 보다 풍성하고 뜻깊은 전시 구성이 되었다. 한편 모교와 일본 동경예술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성동문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도예공방 석진을 운영하며 매년 개인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다양한 생각이 어울리며 성장하는 임상빈(95서양)

임상빈 동문의 초대전 '다양한 생각이 어울리며 성장하는'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정부서울청사갤러리에서 기획초대로 개최되었다. 임동문은 일종의 추상적인 함수로서 이번 작업과정에 여러 특성을 부여하였다. 첫째로 생각의 바다를 표현하였다. 얽히고 설키며 여기서 저기로 혹은 저기서 거기로 끊임없이 교차하는 풍경을 시각화했다. 둘째로 작은 아이들을 표현함으로써 독선적인 주인공 없이 기본적으로 다들 소중하게 여겨지며, 그리고 때에



따라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낸다. 세번째로는 생명의 성장과정을 표현한다. 화면에 붓칠한 것을 계속해서 매만지면 획들이 더욱 무게감있게 도려했진다. 통상적인 추상화와 달리 일종의 군집 초상화를 표현한 것이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미술교육 박사학위를 받은 뒤 활발히 활동중이다.

PLANTLER **윤주원(95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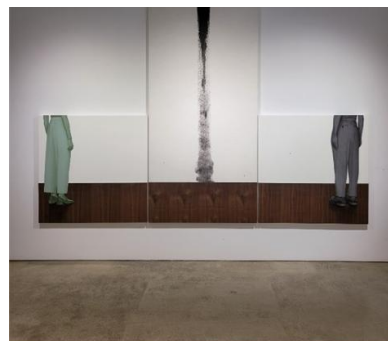
윤주원 동문의 개인전 "PLANTLER" 전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서울 용산구 디멘션갤러리에서 열렸다. PLANTLER는 식물 PLANT와 사슴뿔 ANTILER를 합성한 제목으로, 사슴뿔과 식물의 공통점인 생장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질서와 순환을 회화, 판화, 콜라주 작업, 미디어 작품과 패브릭 프린팅 등 다양한 매체와 소재로 선보였다. 윤동문은 단지 시각적 유사성을 흥미롭게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과 식물, 생과 사의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떨어지고 나기를 반복하는 것들의 연약함이 역설적으로 생명의 세밀한 강



인함을 드러낸다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은유한다. 또한 작품에서 드러나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의 향연과 섬세하고 강렬하게 장식한 문양들을 전복시키는 치장 행위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보다 극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작업 과정에서 숨을 참아내며 그림과 호흡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명의 진술함을 경험하기도 했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한 윤동문은 9차례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통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놓다, 쌓다, 묶다 **손문일(00동양)**

손문일 동문의 개인전 '놓다, 쌓다, 묶다'가 지난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헬렌앤제이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은 약 20여 점으로 스테인레스와 직물을 사용한 군상들과 묶어진 리본 등 시리즈로 된 연작이 대표작이다. 두 남녀가 엇갈린 채 서 있는 '관계'는 먹, 한지, 스텐레스 판, 옷감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인간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탐구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견수 미술비평가는 손동문에 대해 "한국화 출신이면서도 고답적 정서나 방법론에 기대



지 않고 한국화의 재료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 온 보기 드문 작가'라 평하였다. 한편 손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북경 중앙미술대학원 벽화과를 졸업한 뒤 현재 중앙대에서 현대 예술이론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서울과 북경, 베니스에서 6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스위스 제네바의 Korean's Spirit, Artvera's전 등 다수의 해외전도 참여하고 있다. 장흥 가나아트레지던시에 입주해 있으며, 서울예술대와 성신여대에 강사로 출강 중이다.

마음의 풍경 **노현지(01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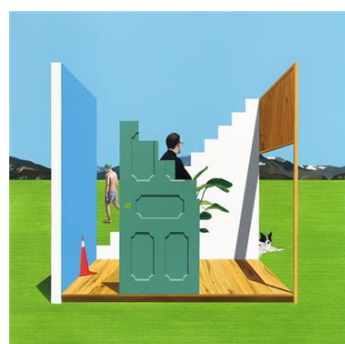
노현지 동문의 개인전 '마음의 풍경'이 지난 10월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 이태원동 갤러리오에서 열렸다. 노동문은 이번 전시에 대해 "한국인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큰데, 성격유형검사(MBTI)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잘 파악하고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 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려 했다"고 말했다. 그의 작품은 일종의 인포그래픽으로, 본인과 주변 사람의 기질 및 성격



검사(TCI검사) 결과를 그림으로 재해석했다. 노동문은 TCI검사에서 측정하는 여러 특성을 각기 다른 모양으로 표현했다. 야망은 뾰족한 화살표 모양으로, 동정심은 초록색 끈이 엉켜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한편 모교 디자인학부 연구교수인 노동문은 다음 달 벨기에 앤트워프와 미국 LA에서도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Select Scene 장면선택 **채지민(03서양)**

채지민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서울 성북동 옹스큐라에서 열린다. 채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비어있지만 비어있지 않은 물체, 한 공간에 있지만 마주하지 않는 인물들을 통해 차단된 긴장감과 역설적인 조화를 담은 장면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엔 대형 작업 'You Will Never Know Where They Are'를 비롯해 15여점의 신작이 전시된다. 채동문은 회화의 평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미지 사이에 단절과 소통을 배치하



며 현대적 회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으며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영국 첼시대학에서 순수미술 학위를 받았다. 이후 '들판에서'(노블레스컬렉션, 서울, 2019), 'In the End, We Are All Alone' (Griffin Gallery, 런던, 2016)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전시 및 Art Miami 등 여러 아트페어, AHL Foundation 레지던시(뉴욕, 2015)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색적 풍경 **김종규(06동양)**

김종규 동문의 개인전이 서울 종로 자하문로에 위치한 본화랑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열린다. 비단에 수묵화를 그리는 작업으로 알려진 김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사색적 풍경'이라는 전시 타이틀처럼 조용함을 담은 그림을 선보인다. 정갈한 수묵과 고요한 여백이 만들어낸 흑백 풍경은 깊은 내면세계로 침잠하게 한다. 세상의 소란을 벗어나 자연을 고요히 관조하고 사유하는 작가의 철학이 빛난다. 모교 동양화과 조교를 역임한 바 있는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동양화전공 박사과정을 졸업

했다. '光/影-Light&Shadow'(갤러리임, 2020), '사색의 시간'(신한갤러리, 2018)



등 3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남도전통미술관, 2021), 'YMCA+YWCA'(갤러리이마주, 2020), '화랑미술제 신진작가특별전 ZOOM-IN'(코엑스, 2020), 'Axis'(021갤러리, 2018) 등 다수의 그룹전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CHO **이소윤(06서양)**

이소윤 동문의 개인전이 대구 중구에 위치한 갤러리CNK에서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5일까지 열렸다. 최근 작업들은 이동문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집 정원의 사계절과 유년시절이 물감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생동감 있는 에너지로 표현된다. 이동문은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와의 교감을 통해, 삶의 다양한 모습을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나타나는 소통과 불통이 빚어내는 삶의 다채로움을 시각화하고 있다. 또한 이동문은 붓 대신에 하드보드지 조각이나 나이프를 이용해, 강렬한 색이 혼합돼 만들어진 그라데이션과 두텁게 겹쳐진 레



이어를 만들어낸다. 층층이 모여진 레이어들은 일필휘지 획이 돼 율동적인 색의 향연으로 생생한 기운을 전달한다. 작가는 "나의 페인팅은 다층화된 해석의 스펙트럼에서 가능한 이상적 소통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이상적 소통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삶 속의 장면들을 화면에 옮긴다"고 말했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와 영국왕립예술학교 페인팅 석사과정을 졸업한 이동문은 여러 개인전과 다양한 초청 전시회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12월의 전시



전시 배달부
김덕기(89동양)
8.24 – 23.1.29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은빛 날개의 꿈과 기쁨
엄태정(58조소)
8.24 – 23.2.26
아라리오뮤지엄



별을 그리는 마음
이만익(57회화/1938-2012)
9.2 – 23.2.5
소마미술관



Dreaming
안말환(76회화)
10.5 – 12.6
The Stay Healing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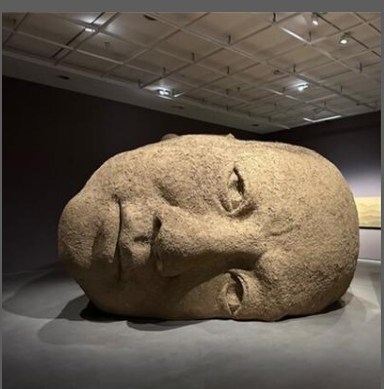
스물 네 개의 빛바람
김덕용(81회화)
10.8 – 12.31
영은미술관



Pairs 쌍 - 댕구
윤동천(81회화)
10.20 – 12.21
갤러리시몬



無我行
오수환(65회화)
10.20 – 23.1.10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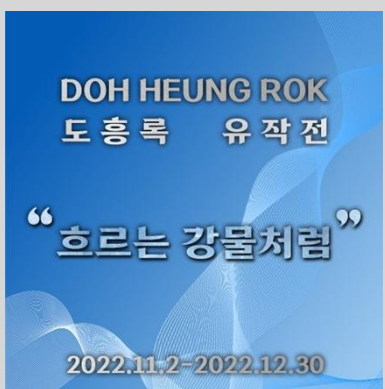
임옥상 : 여기, 일어서는 땅
임옥상(68회화)
10.21 – 23.3.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Select Scene 장면선택
채지민(03서양)
10.23 – 12.12
옵스큐라



욕망의 전조
류지선(89서양)
11.1 – 23.1.29
호암교수회관



**DOH HEUNG ROK
도 흥 록 유 작 전**
“흐르는 강물처럼”
2022.11.2-2022.12.30



Veiled & Floating
권용래(82회화)
11.8 – 12.10
Art Project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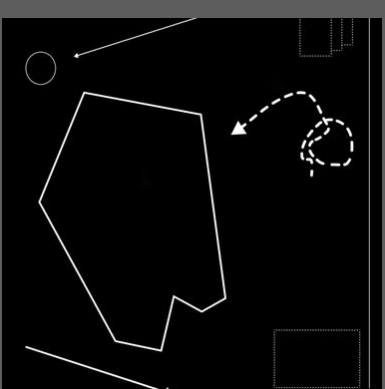
**CHAE JIMIN
Walk Stay Gaze**
November 18, December 17, 2022
Opening Reception November 11, 2022 4PM - 7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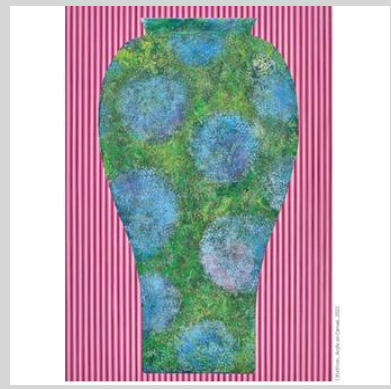
**바다, 연기, 그늘
The Sea, Smoke and Shade**
2022.11.18. - 12.4. 11:00-18:00
인천아트플랫폼 G1 프로젝트 스페이스 1
IAP G1 Project Spac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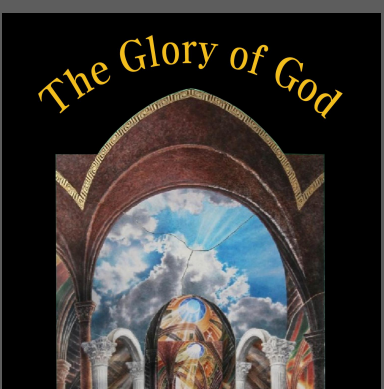
Vitality
문혜정(74회화)
11.23 – 12.13
baka gallery



16:9
김기홍(15동양)
11.29 – 12.13
응접실(인천 중구 울목로)



차임선 개인전
차임선(70응미)
12.2 – 12.14
갤러리 내일



The Glory of God
변영혜(78회화)
12.10 – 12.18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



回歸本能(회귀본능)
이민주(76회화)
12.16 – 12.23
겸재 정선미술관



유인수 초대전
유인수(66회화)
12.20 – 23.1.5
Gallery U.H.M